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다짐

도, 제35보병사단에서 '통합방위 회의' 가져... 제35보병사단·전북지방경찰청 보고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3일, 제35보병사단에서 '2017년 제2차 전라북도통합방위 회의'를 갖고 민·관·군·경이 다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위협 속에서 안보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민·관·군·경 협조체제로 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는 제35보병사단의 최근 북한 도발 및 테러위협 평가 보고와 2017년 상반기 통합방위 성과 및 하

반기 계획에 대하여 제35보병사단과 전북지방경찰청 보고가 있었다.

이어 제35보병사단 장병들의 특공무술 시연을 관람하면서 향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따라 튼튼한 지역안보 태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평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24일부터 개최되는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도 안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찾아가는 '규제개혁 컨설팅' 추진

전북도는 규제개혁 평가가 2018년부터 정부합동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적극적 행정 마인드 함양과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시군 규제개혁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6월 20일 정읍시까지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7개 시군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은 도 규제개혁팀원 전체가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시군 직원들에게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발굴 방법, 불합리한 규제 정비, 정부평가 대응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기업 소상공인의 지역현장 규제 및 도민 생활 속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협의의 장이 되고 있다.

또,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50건을 발굴하여 부처에 건의하였고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로 인한 문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방문, 과제를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신 성장 분야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개발공사 방문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전북개발공사를 방문해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진홍 정무부지사, 진안 '원연장마을' 방문

주민들과 대화 통해 애로사항 청취·해결방안 모색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 진안 우수 마을기업 현장 방문

- 12일 진안 꽃잔디 '원연장마을' 현장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시간 가져
-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화 방안 모색

전북도 진홍 정무부지사는 지난 12일, 진안 소재 우수 마을기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안 원연장마을을 방문했다.

꽃잔디 마을로 알려진 원연장마을은 2015년 마을기업 지정 이후 2016년도 매출액이 135%(4000만원-9400만원), 고용인원 114%(7-15명)로 대폭 증가, 상시 영업 중인 농가 레스토랑

'꽃잔디 밥상'과 매년 5월 개최되는 '꽃잔디 축제' 등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연간 4만 여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의 모범 우수 마을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의 '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설비구축(뜰기름 유착 등), 신제품(연잎차, 삶은나물) 및 포장재 개발, 마을기업 간의 네트워크 교류와 상생 방안으로 '도내 마을기업 제품 판매장'을 구축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을기업들의 제품을 전시 판매할 계획이다.

진홍 정무부지사는 "도의 핵심정책인 '보람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삼박농정의 성과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

인들이 삼박농정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소사육농가 축산물이력제 점검

전북도는 14일부터 28일까지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개월간(2017.4월) 송아지 출생 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142호(전체 8,506호의 1.7%)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고향기부자에 '농축산 답례품' 주자

양성빈 도의원, 정부의 완성도 있는 고향기부제 설계 촉구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방안이 빠진 고향기부제는 '반쪽짜리'라고 하면서 정부의 완성도 있는 고향기부제 설계를 촉구했다.

양성빈 의원은 "새정부가 행자부 주도로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를 제정하고 있지만 답례품 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지고 있다"면서 "고향기부제가 지자체에 새 숨을 불어넣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제공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고향기부제도의 핵심이다. 이미 고향기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도입 초반에는 찬반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농산물, 농촌관광체험권 등의 답례품 제공이 큰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고향기부금이 이 지방세수보다 많은 지자체가 10군데가 넘는 정도로 고향기부제도의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답례품 제공이 고향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향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궁극적으로 고향기부제도의 완성도를 담보하는 동시에 고향기부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가 소득 증대라는 복합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유통구조에서 고향기부자

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고향 농특산물을 받은 기부자가 다시 고향 농특산물을 주문함으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기왕의 기부자 및 잠재적 기부자의 고향기부 의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양성빈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향기부제 논의에서 답례품 제공방안이 빠지는 데 속도전도 좋지만 제도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답례품 제공이 고향기부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가 소득향상 등 다각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자부 주도의 입법준비 과정에 답례품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밖에도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에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상한선을 폐지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향기부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양성빈 의원은 2007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후 잠자던 고향기부제 논의를 10년 만에 다시 끌어올려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시키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기여한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고령자친화기업' 도내 3개 업체 선정

국비 8억원 지원받아 60개 일자리 신규 창출

전북도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6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다고 밝혔다.

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남원 시니어클럽의 HACCP 부각 제조 및 판매사업 ▲(주)코리아하이테크의 '실내청소 등 용역사업' ▲(주)코리아벡푸드의 '애완동물 수제 간식 제조 판매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체는 2억5천만원~3억원

씩 총 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제품개발 및 인증, 판로개척, 세무·노무·법무 등 경영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은 2011년 시작되어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내에는 2012년 전주 한옥마을 천년누리봄(2012년 선정,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을 시작으로 올해 선정된 3개소 포함, 총10개 업체가 선정됐다.

한편, 고령자 친화기업은 업종별 고용목표 인원(최소인원-서비스업 20명, 식품제조업 15명 등)을 설정하여 지원받게 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